

# 國展審査有感

鄭寅國

第2回 建築写真國展을 맞이하고 끝내면서도 아직 이러한 形式의 展覽會의 異常의 狀況에 대한 회의를 풀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建築과 写真만을 한데 뭉쳐 展示會를 가지는 例가 어느 다른 나라에서 있었는가? 어떤 例라던가 格式을 따지기도는 韓國의 특수사정으로 建築과 写真의 두개의 展示會를 時期와 場所를 같이하여 열었다치면 別로 論議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展示會는 時期와 場所를 같이 할 뿐 아니라 審査員構成과 賞配에 있어서도 하나로 取扱되고 있으니 그 妥當性이나 合理性을 云謂하게 되는 것이다.

즉, 美術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전체 部面을 총망라한 綜合展, 유사한 美術分野 것만으로 행하는 獨立展(繪畵展, 彫刻展, 写真展등), 또는 최근에 매우 다른 概念으로 變하기는 하였지만 美術의 純粹性이나 實用性을 감안한 종래의 分類에 따른 같은 性質의 두개 이상의 美術部面의 併立展(미라노·트리엔나레 工芸建築展), 雜多한 同人그룹展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建築과 写真は 어떤 共通된 性質이나 또 같은 묶음으로 展示해야 할 妥當한 理由라고는 하지도 없다. 거기에는 藝術의 한 分類인 美術로서의 廣範圍한 包括의 意味인 Visual art에 屬한다는 理由밖에 없다. 古代 그리스 以來 藝術의 統合體로서의 建築이 二十世紀 機械文明이 낳은 極히 藝術性의 限界가 낮은 写真만 나란히 展示하게끔 格下될 수는 없다. 실제로 1956年 以來의 國展 建築部의 經過過程으로 보나 위에서 따진 妥當性으로 미루어 볼 때 工芸分野가 綜合展에 包含되어 있는 限 建築을 疎外시키는 것은 矛盾된 處事이다. 不合理하게 이루어진 것이나 便法으로 어중간하게 처리된 일이란 언젠가 그 일 自体를 無意味하게 만들거나 存在價值를 喪失케 하기 때문에 이 行事は 조속히 正道에 오르도록 還歸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72年 建築写真展에서 놀랄만한 發展을보인 것은 作品의 量이다. '72年度에는 建築의 응모作品 總數는 不過 11點으로 入選作은 7點이었으나 今年度에는 応募作品 總數는 33點 入選作 19點으로 前年에 比해서 3倍라는 量的增大이다. 이렇게 作

品量이 增大된 理由로는 今年度에는 「새마을주택」이라는 時事性을 띤 特殊題目에 대한 建築家들의 熱意가 結實되어 全体 응모作品數의 半을 넘는 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展이 지니고 있는 意義의 하나로 當面한 民族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어서의 建築家들에게 주어진 任務를 다하는 길을 表現 發表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번 이 課題提示의 의의는 크며 또 이 課題를 놓고 応募한 個個의 建築家들의 熱誠 또한 높히 評價할 만하다.

새마을주택計劃案으로 大統領賞을 탄 윤우석, 이병호, 정혁진(弘大建築科 出身) 등의 作品은 우선 테마設定에서 審査員들의 共感을 샀다. 즉 小手工業的 生産工場을 農民經濟生活水準向上을 위한 한 方便으로 採択하여 이 工場을 中心으로한 協同生活를 營爲하도록 꾸며져 있는 點이다. 또 한便스레이트나 빨리같은 藝術的表現을 하기에는 너무 값싼材料를 구사하여 工場이나 住宅을 아름다운 空間으로 形成한데 이 作品의 우수성이 있다. 이 作品의 結晶은 이러한 個個의 作品의 藝術性이나 實際性은 優秀하나 全体團地計劃으로서는 初步的인 團地構成原理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形便인 點이다.

國務總理賞을 탄 양영일의 4名合作으로된 民俗文化院計劃案은 建築計劃面이나 表現技法上 흠할데 없는 優秀한 作品이며 특히 民俗文化院의 性質로 建築의 基本 어프로치를 韓國固有한 建築配置나 形態에서 유도한 點은 好感이 간다. 그러나 단지 平面的配列뿐이고 그 平面構成에서 오는 外部空間의 素朴한 棼임새있는 아름다운이나 建物全体가 비쳐내는 스카이라인의 배리에이션은 表現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形態構成이 陳腐한 從來의 많은 手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點이 흠이 되었다.

文化公報部受賞作 單位成長住宅은 이미 몇차례 試圖한 이와 유사한 案의 하나이며, 새마을주택안으로서의 너무 技術面이 치중되고 精神的面的 表現이 度外視된 點이 指摘되었고 國民學校計劃案 亦是 歐美에서 그 나라 教育法에 適應시켜 마련한 教室構想의 하나로 단지 이러한 새로운 教育方法이나 表現을 誠實히 다루었다는 點이 評價된 것이 다.

전반적으로 量的 增大에 比해 建築內容의 質은 例年에 比해 별로 進展이 없다는 審査員 全員の 綜合된 意見이다. (弘益大學校 教授)